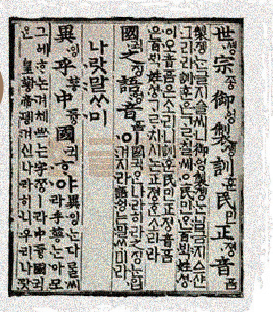


Mission **함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ㅌ(ㅇ) ㄷ(ㅅ)



며칠 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버린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이번 한글날은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960돌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세계 어떤 언어보다도 과학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한글 자모 중에 우리가 평소 잘못 표기하기 쉬운 ‘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글 자모 ‘ㅌ’은 ‘ㄷ’에 ‘ㄹ’을 가획한 글자로서 ‘ㄱ’에 ‘ㄹ’을 가획한 ‘ㄴ’과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모 ‘ㅌ’은 왼쪽을 완전히 막아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습관적으로 ‘ㄷ’ 위에 가로줄을 얹은 것처럼 오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차이이지만, 세종대왕이 많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여 만들어낸 소중한 우리말이니 만큼 창제 당시의 형태를 지켜나기야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주차안내 실습

2006년 피택자 양육클래스 실습과정 이 9월 19일 부터 12월 10일 까지 13주 동안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서 두 주간씩 실습을 하게 된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며 특별히 봉사와 협조가 많이 필요한 주방부, 주차안내부, 봉사부의 3개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실습을 하게 된다 이번 주는 주차안내부 봉사를 하는 권사피택자들을 취재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교회 주차안내를 무더위와 먼지 속에서 몸소 겪어보면서 3시간 동안 현장 실습에 땀 흘려 참여했다. 주차안내사역자들의 수고가 이런 것인 줄 그동안 몰랐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한 이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위해 주차안내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도 함께 전했다.



교회생활 이모저모

박동현목사



오늘과 다음 주일 설교를 맡게 된 박동현목사는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M.Div. Th.M)과 독일 Berlin 신학대학(Dr. theol.)에서 수학했다.

설만한 물가 온수통 설치



봉사부에서는 설만한 물가에 주일 커피봉사를 위한 온수통을 설치했다. 그동안 주방에서 뜨거운 물을 끓여 설만한 물가로 일일이 끌고 왔지만 국수 제공 등 바쁜 시간이 겹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예배전 후에 뜨거운 물통 이동시 복잡한 통로 사이로 끌고 다니는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하였다

영화상영, 파이스토리

오늘 오후 4시 1층 유년부실에서 30cup 예배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영화상영이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 권 제 189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10월 15일



지난 주일 문답식을 마치고 나온 세례준비자들이 사역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오늘 오후 5시 중예배실에서 세례를 받게된다.

오늘 30CUP 예배, 김미자 호스피스 선교사 초대

“남아 있는 것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 아름답다.”

나에게 연결된 환자는 주로 말기 암 환자다. 머리카락은 여러 번 빠져 물결이 흉하다. 그들은 2-6개월이라는 시한을 의사로부터 선고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예민하고 짜증내며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다. 대부분 말수가 적고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단 두 번의 만남으로 죽음을 맞이한 환자도 있고 7년을 넘게 산 환자도 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내가 만나는 말기암 환자 중에는 다리 뻗고 누는 것,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걷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다. 앞으로 일하다가 하늘 한 번 쳐다볼 줄 아는 조그만 여유만 있다면 우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워 질 수 있다. 많이 가져야 풍성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병들고 죽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남아 있는 것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 질 수 있을 것이다. (김미자 글에서 발췌)

오늘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30CUP 예배가 있다. 오늘 예배에는 특별히 김미자 호스피스 선교사가 초대 된다. 김선교사는 우리나라에 호스피스제도가 정착하기 전부터 호스피스 사역을 현장에서 일구어낸 귀한 일꾼이다. 20여년을 한 걸 같이 병원과 환자의 집을 오가며 그들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다워 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돕고 있다. 김선교사는 오늘 30CUP 예배에 초대되어 '가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하여 전하게 된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의 삶으로 더욱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할 것이다.

오늘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30CUP 예배가 있다. 오늘 예배에는 특별히 김미자 호스피스 선교사가 초대 된다. 김선교사는 우리나라에 호스피스제도가 정착하기 전부터 호스피스 사역을 현장에서 일구어낸 귀한 일꾼이다. 20여년을 한 걸 같이 병원과 환자의 집을 오가며 그들의 마지막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다워 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돕고 있다. 김선교사는 오늘 30CUP 예배에 초대되어 '가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하여 전하게 된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의 삶으로 더욱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할 것이다.

성찬예배 |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 확인

10월 1일 주일예배에 성찬예식이 있었다. 4부예배가 시작되어진 후 처음 드러진 성찬예배였다. 썩수 달 첫 주에 드러지는 성찬식은 1부부터 4부까지는 대예배실은 물론 제3집회실과 예절실(1-3부), 중예배실(3부)에서도 진행된 다. 성찬식 전 정희성 목사는 "고요한 외침(롬 8:31~39)"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한 환경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고 전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까지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설교했다.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떡과 잔에 동참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기용(안수집사, 홍보출판부장)

environment school

주님의교회 환경학교 - 삶에서 녹색희망 찾기

환경사역팀에서 환경학교를 개최하여, 생태·환경에 관심있는 교우들을 초대한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은 피조세계와 사람과의 관계이다. 그 중요성은 현대에 와서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과,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배움으로 생명과 살림의 문화를 가꾸어가게 될 것이다.

일시: 11월 1일~11월29일 까지 5주간 (수)오전 10:30-12:00(90분)
장소: 초등부실(3층)
강사: 유미호(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내용: 매 강의마다 15분씩 성경말씀을 녹색의 눈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월	일	주별 내용
11	1	일상에서 자연과 평화에 이르는 길
	8	몸과 마음, 땅을 살리는 생명밥상 빈그릇실천
	15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힘, 물을 살리는 EM
	22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환경호르몬)에서 자유롭기
	29	석유위기 5분전, 행복하고 평화로운 에너지로의 전환

※문의: 환경사역팀장 백숙자교사 010-4726-2090

〈콘서트〉

결식 학생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하프타임 사역팀과 제1남선교회가 주최하는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가 오는 10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본교회 이동훈집사(살림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로 서울칸티컬합창단과 정상규 연주자들이 함께 공연합니다. 많은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①



플루트/박성민
이스트만 음대 졸업
뉴욕주립대 음악박사
30여회의 독주회
백석대학교 교수



플루트/이윤영
이스트만 음대 졸업
뉴욕주립대 음악박사
SWMF 콩쿨 1위
백석대, 삼육대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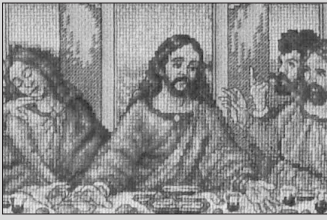


바이올린/김성혜
서울대, 문헌국립음대 졸업
뉴욕주립대 음악박사
바로크 합주단 단원
서울대, 서울예고 출강

예배의 현장

“와서 조반을 먹으라”

10월 4일 수요일예배에서 김신영 전도사가 요한복음 21장1~14절 말씀을 전했다.



부활
하 신
예수님
께서는
아침식
사 를

차려놓고 제자들을 만찬에 초청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가나의 혼인잔치, 최후의 만찬 등 성경의 많은 곳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한 주님의 행적을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다. 예수님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행위로 공적인 사역을 담당하셨다. 이를 통해 죄인이든 의인이든 공평하게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눔으로써 빈부귀천이나 세속적인 지위가 통하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식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이웃을 초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셨던 당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빨리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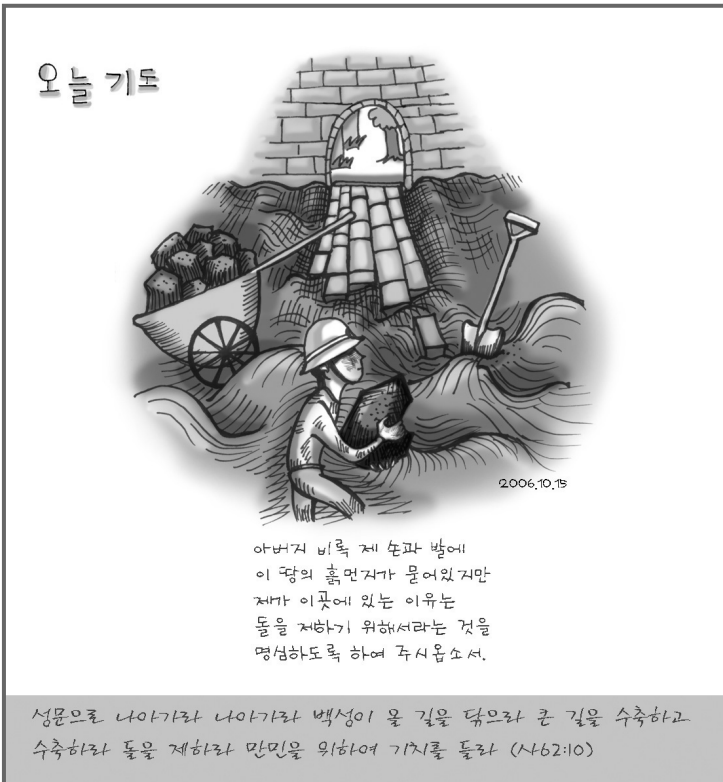
10월 10일 수요일예배에서 정영환 목사가 누가복음 2장8~20절 말씀을 전했다.



설 교
의 시작
을 '메리
크 리 스
마스'로
시 작 해
성 도 들

의 목소를 자아낸 정목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탄인사는 연말에만 주

고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삶속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왕궁의 화려한 침대 대신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도 목자들의 그 즉각적이고 순종적인 경배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혼아 주를 찬양하라” 4부예배 찬양대 신설



4부 찬양대가 10월 둘째 주일(8일) 처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였다. 지난 8월 마지막 주 4부예배가 신설되면서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살롬 찬양대가 한 주씩 번갈아 찬양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새롭게 결성된 4부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 4부 예배 찬양대가 처음으로 부른 찬양은 “내혼아 주를 찬양하라”였으며 찬양 후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냈다. 비록 적은 수의 인원으로도 출발하였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가운데 풍성한 4부 예배 찬양대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나의신앙이야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추석연휴 기간 동안 아이의 학업 문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 중 차안에서 아내가 한국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러기 위해서 둘째 아이에게 작은 아이를 돌보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둘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르바이트도하고 해야 할 것이 많은데 나보고 베이비시터나 하라고...”

엄마 아빠는 자신을 때문에 고달픈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리다지만 조금은 섭섭하기도 했고 아직은 철부지 아이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라는 것이 결국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며 차 옆 유리창으로 희미하게 비쳐지는 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그게 바로 네 모습이지 않니!”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모습이라니요?”

“보다 더 중요한 일로 그런 결정을 내렸더니 너는 이것저것 별 유치한 이야기를 다하면서 너도 다른 곳으로,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고 투정하는

네 모습 말이다.”

순간 최근 목사님 사임소식에 대해 반응했던 내 모습이 빠르게 머릿속으로 지나갔습니다. 막내를 돌보는 것 대신 이것저것 다른 경험도 해보고 싶다는 둘째 아이의 이야기와 똑같은 나 자신의 반응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적인 기준만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었습니

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막내도 돌보고 공부도 잘하고 있을게요!’ 라고 둘째 아이가 말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처럼 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주님! 걱정마십시오! 제 맡은 일을 충실하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한편으로 왜 이리 철이 들지 못하는가? 왜 이리도 성숙하지 못하는가? 하는 자책감에 잠시나마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만 갖고 있을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한참이 지나서 마음속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여

제가 믿는 자만이인 주님이 주님께이 믿는인 역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신 달란트 다섯개, 열 개씩 남기지는 못하지만 작은 것 한 개, 두 개 씩이라도 주님을 위해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문턱, 철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용수(안수집사)

2006-2 양육 클래스 취재

선교학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1층 제 3집회실

권성찬 선교사



‘선교학교’ 강의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층 제 3집회실에서 열린다. 손영익 집사가 주관하는 선교학교는 매주 선교에 관련된 다른 강사들을 초대해서 선교의 역사에서부터 실제로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의를 듣는다. 이 강의를 통해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부담 없이 선교에 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선교가 특정 선교사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 9월 30일 여섯 번째 시간에서는 권성찬 선교사(GBT 세계성서번역 선교회장)가 “성서적 관점에서 본 선교이야기”강의를 했다. 권선교사는 성서적 관점이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가?’, 라고 말하며 창세기 아담의 선악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구원을 얻게 된 성경말씀을 강의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올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인용 하면서 전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했다.

사진학교,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공동체를 함께 느끼며 즐기는 강좌

매주 오후 1시 30분 ~ 3시까지 4층 당회원실

최재호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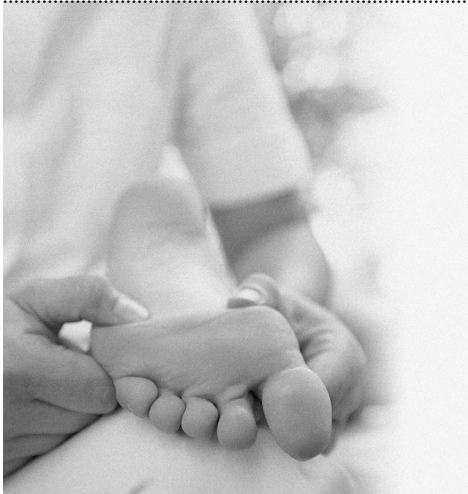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사진학교가 1, 2기 (임근원집사 강의)에 이어 제3기를 맞았다. 2006-2학기에 개설된 3기는 최재호집사의 자상한 강의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약 4주에서 6주간은 집중적으로 이론을 강의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기와 이론을 겸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외부로 사진출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진학교의 주된 목적은 사진 뿐 만아니라 우리의 낮은 이웃을 교회로 초대하여 사진이라는 문화적 공감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친교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주님의교회 사진동아리(이하 주사동)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깊이 사진을 배우고 실력을 연마하고 있다. 주사동은 현재 교회 내에서 사진을 통해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최재호집사는 사진에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환영하며 앞으로 사진 강좌를 통해 사랑실천과 화합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호스피스교육특강

발마사지



10월 12일 호스피스 교육에서 발마사지 강의를 하였다. 발이 인간의 신체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양혜림 선생(한국 발 반사 학회)의 강의를 있었다. 발은 심장에서 제일 멀리 제일 아래쪽에 있어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혈액 순환에 장애를 받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므로 항상 자각사태에 있거나 문질러 주면 우리 몸 전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므로 발의 건강이 무척 중요하다 했다.

〈건강한 발의 조건〉

1. 장시간 걸어도 아프지 않아야 한다.
2. 잘못된 구두를 신지 않아 발의 변형이나 염증이 없어야

- 한다.
3. 관절이 좋아 잘 구부러져야한다. (90도가 휘어져야 정상)
4. 발바닥의 무게가 발의 중심에 골고루 분산되게 걸어야 한다.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앞꿈치를 나중에 닿도록)
5. 발목이 가늘어야한다. (발목의 노폐물을 마시지로 없애주어야 한다)
6. 티눈 무좀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7. 발가락이 벌어지고 , 발바닥 가운데 주름이 많아야한다.
8. 발은 항상 따뜻하고 발바닥은 분홍색이어야 한다.

※발 관리를 할 때에는 발전용 크림을 사용하며 각질을 제거할 때는 마른상태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한다.